

진보 교육감들 정책행보 '극과극'

- ① 학교폭력 기재-광주 '보류'·전남 '수용'
- ② 일제고사 여부-광주 '반대'·전남 '찬성'
- ③ 야간 자율학습-광주 '규제'·전남 '자율'
- ④ 인권 조례-광주 '학생'·전남 '교사포함'

지난 2010년 나란히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장휘국·장만채 광주·전남 교육감의 엇갈린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장만채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을 지냈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선거에서 전교조와 진보 교육단체들의 전폭 지원으로 교육감 자리에 올랐다.

교육감의 정책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교과부가 훈령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애초 '보류'에서 '고교 3학년'에 한해 기록'으로, 다시 전면 보류로 입장을 바꿨다. 장 교육감의 입장은 "학생의 과오를 이중 처벌하고 전과자로 낙인찍는 등 비교육적"이라는 것으로, 전교조 등 진보 단체의 주장과 같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가해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인권도 살피는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라며 애초부터 교과부의 훈령을 군말없이 수용했다.

급기야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들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방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 전남도교육감 부속실을 점거, 농성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 시·도 교육감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학생에게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를 주고 경쟁을 부추긴다"며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 초·중학생의 일제고사(교과학습 진단평가) 등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과 달리, 장만채 교육감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며 시험을 꼬박꼬박 치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고교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엄격히

제한·규제하고 있는 데 비해 전남도 교육청은 야자 제한 시간은 같으나, 그 운용은 사실상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창의·인성, 자기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게 교육목표인 '빛고를 혁신학교'를 올해 고교(성덕고)까지 확대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와 대조적으로 "무지개 학교"를 실시를 앞둔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보류했다.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현안인 학생 인권조례에도 광주·전남교육청의 각기 다른 교육철학이 담겨있다. 울초 제정·시행된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명칭 그대로 학생인권을 강조한데 비해, 전남교육공동체 인권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이 이념, 노선, 특정단체와의 이해관계를 떠나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진정으로 배려한 교육정책을 폼으로써"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시 경쟁률 20~30% 하락

서울 주요대 모집 마감...지원횟수 6회 제한 탓

수험생들의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면서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전년 대비 20~3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입시전문기관에 따르면 8일 수시 1차 모집을 끝낸 완료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21.28대 1을 기록, 지난해 평균 경쟁률 32.13대 1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대학별 평균 경쟁률은 건국대 17.65(지난해 32.88)대 1을 기록, 경희대 21(29.66), 고려대 24.90(31.47), 국민대 20.73(28.98), 동국대 19.08(31.47), 덕성여대 7.85(13.32), 서강대 29.32(41.32), 성균관대 28.25(36.88)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수시 경쟁률 하락은 수시지원 횟수를 올해부터 6회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입시전문 기관 관계자는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20대 1이 넘는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작년에 하수 지원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빨래봉사 나왔어요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역본부와 KB국민은행 호남지역 봉사단원들이 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민들의 이불 빨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토플성적 발표 또 연기...응시생들 반발

토플(TOEFL) 시험의 성적 발표가 2회 연속 미뤄져 시험 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ETS)에 대한 응시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ETS는 "지난달 25일과 26일에 시행한 토플 IBT 시험의 성적을 7~12일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홈페이지와 응시자들의 메일을 통해 공지했다. 토플은 통상 시험일로부터 10여일 뒤 인터넷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응시자들은 6~7일째 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19일 치러진 시험 결과 발표 연기에 이어 이번 시험 성적 발표도 연기된 것이다. ETS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자가 너무 많았고 미국 공휴일(4일 노동절)이 끼는 바람에 체질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대학의 수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일인 8일에도 성적이 발표되지

않아 대입 서류에 토플 성적을 제출하려던 수험생들은 불만을 겪었다. 지난해 25일과 26일 시험이 원서 접수 마감 전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토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응시자는 "아무리 항의해도 불과피하게 토플을 봐야 하니 ETS가 한국 학생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응시자는 "20만원 가량 들아가는 시험을 보게 해놓고선 ETS는 지금까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학폭, 새 스마트폰 앱

'굿바이 학교폭력' 배포

학교폭력을 당하면 긴급번호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신고와 상담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굿바이 학교폭력'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보급된 '굿바이 학교폭력'의 기능을 대폭 개선한 새버전을 10일부터 배포

한다고 9일 밝혔다. 새 버전은 '나만의 긴급번호'라는 코너를 신설해 미리 번호를 설정해놓으면 긴급상황 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문자 발송 때는 본인의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함께 확인해요'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피해 여부를 짐작해볼 수 있는 테스트 및 대처요령,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퀴즈 풀이보기 등이 포함된 코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2분 / 해질 18시 47분 / 달돋이 00시 11분 / 달질 14시 41분

감기 조심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다.

구분	기온	날씨
광주	19/28°C	구름맑음
목포	18/27°C	구름맑음
여수	19/26°C	흐리고안개비
나주	18/29°C	구름맑음
완도	18/28°C	흐리고안개비
구례	17/29°C	구름맑음
강진	18/28°C	흐리고안개비
해남	17/28°C	흐리고안개비
장흥	17/28°C	흐리고안개비
순천	17/28°C	구름맑음
영광	17/28°C	구름맑음
진도	18/27°C	흐리고안개비
전주	18/28°C	맑음
군산	16/26°C	구름맑음
남원	16/28°C	흐리고안개비
옥산도	19/24°C	구름맑음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구분	종양	파고	미물	썩음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욕	08:16 ~ 03:0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여수	21:32 ~ 14:2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여수	04:02 ~ 10:1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여수	17:21 ~ 23:58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8/28	21/27	21/26	18/25	17/25	17/25

하루 평균 42.6명 꼴 자살

한국 OECD 1위 '오명'...대부분 우울증이 원인

10일은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했다. 2010년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1만5566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꼴이다.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9일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15.6%는 평생 한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3.2%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단연 자살(13%)이다. 청소년 10만명당 1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다. 노인은 10만명당 81.9명으로 일본(17.9명),

미국(14.5명)과 비교가 안 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우울증이라는 질병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는 "우울증으로 인한 마음의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문제가 범죄'가 되고 내부로 향하면 자살로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한국 사회가 성장 일본도로 가며 풍족해졌지만 개인의 정서는 오히려 폐쇄해진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을 잘 관리해 전체 절반에 이르는 총동적인 자살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성장 일본도 가치관을 감성적·철학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입지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규모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라카를, 샤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라카를,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 160대 주차
특이사항 | 감정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現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